

200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수험 번호		성 명	
-------	--	-----	--

시간 120분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3.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4.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함.
- “0”점 처리 사항
- 암호 표시나,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원고지 앞면에 2번 문항, 뒷면에 1번 문항을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 또는 연필로 작성한 경우.
 - 적색 펜이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문항 1] 제시문 **가**의 관점을 참고로 **나**, **다**, **라**에 드러난 자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750자±50)

가 지구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과 그에 따른 물질적 진보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구는 생성 이래로 수십 억년 동안 나름대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 혁명 이후 불과 200여 년 사이에 지구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이 낳은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지구는 인간의 정복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깔려 있었다. 특히, 자연 환경에 대한 파괴와 정복을 일삼았던 서구인의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은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Descartes, R.)는 『방법 서설』에서 낡은 철학 대신에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식적·정신적 존재로서, 물질적 자연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은 죽은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의 자연관은 자연 환경을 인간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후 서양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이고 자연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서구인들은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무분별한 자연 착취와 자원 남용을 정당화함으로써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와 자연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

나



<앤드루 부부> (유채/69.8×119.4cm/1748-1750년경)
게인즈버러(Gainsborough, Thomas/1727-1788/영국)

-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

다

그대들[백인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대들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들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 고등학교 『문학(하)』 -

라

산의 품평회를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우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無窮無盡)이다. 장안사 맞은편 산에 울울창창(鬱鬱蒼蒼) 우거진 것은 모두 잣나무뿐인데, 모두 이등변삼각형으로 가지들 늘어뜨리고 섰는 품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흡사히 괴어 놓은 차례탑(茶禮塔)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禮佛床)만으로는 미흡해서, 이렇게 자연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은 것일까? 얼른 듣기에 부처님이 무엇을 탐낸다는 것이 천만부당한 말 같지만, 탐내는 그것이 물욕 저편의 존재인 자연이고 보면, 자연을 망껏 탐낸다는 것이 이미 불심(佛心)이 아니고 무엇이라. (중략)

비로봉 최고점이라는 암상(巖上)에 올라 사방을 조망했으나, 보이는 것은 그저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운해(雲海)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었다. 내·외·해(內外海) 삼금강(三金剛)을 일망지하(一望之下)에 굽어 살필 수 있다는 한 지점에서 허무한 운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가석(可惜)하나, 돌이켜 생각건대 해발 육천 척에 다시 신장(身長) 오 척을 가하고 오연(傲然)히 저립(佇立)해서, 만학천봉을 발 밑에 꿰어 엮드리게 하였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라. 마음은 천군만마(千軍萬馬)에 군림하는 개신 장군보다도 교만해진다.

- 고등학교 『국어(하)』 -

[문항 2] 제시문 **나**, **다**, **라**를 활용하여 **가**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해 보시오. (750자 ± 50)

가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상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태당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되고 그러한 정신의 교육으로 영속될 것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한 사랑하자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후지덕(仁厚之德)이란 것이다. (중략)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 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도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 투쟁은 끝없는 계급 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

-고등학교 『국어(상)』-

나 일부 OECD 회원국의 사회 보장비

(단위 : 각국 GDP에 대한 %, ()는 1인당 국민 총소득(당해년 가격), 단위는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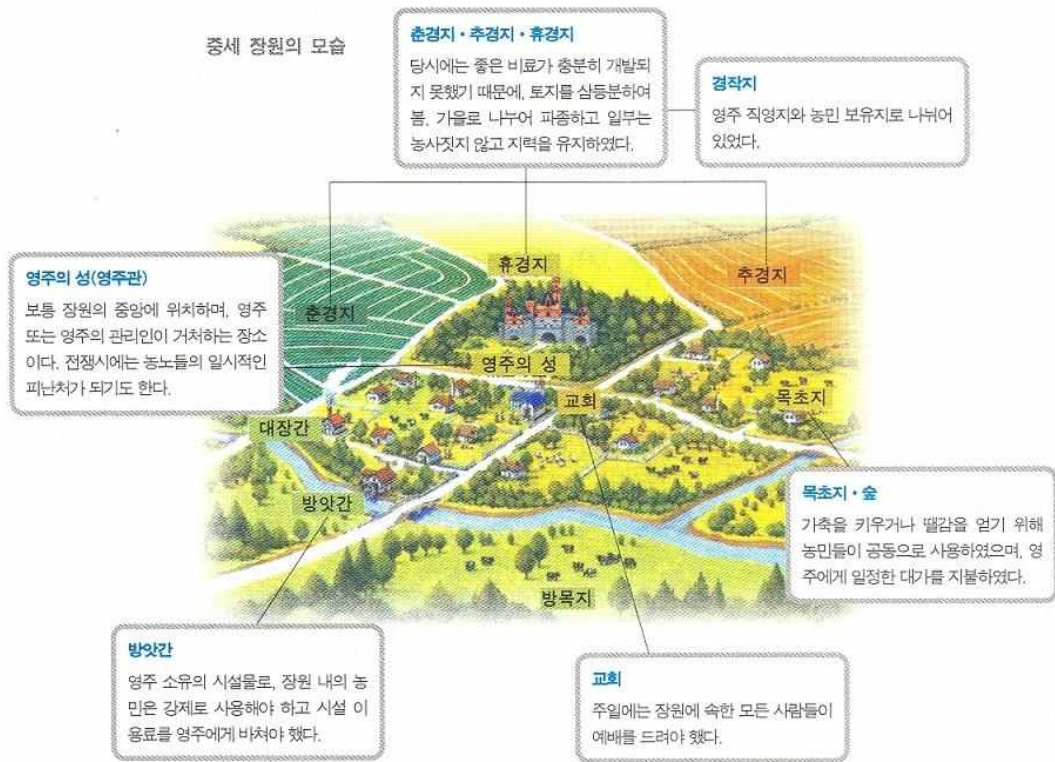
국가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한국	-	4.52(5,886)	5.23(10,824)	11.09(6,743)
오스트리아	26.34(8,736)	26.17(20,876)	28.96(28,818)	27.77(26,114)
프랑스	26.90(9,425)	26.50(20,869)	29.63(26,573)	29.52(24,798)
독일	23.00(10,234)	22.50(19,043)	29.08(29,945)	29.24(25,997)
일본	11.08(11,344)	10.97(24,872)	13.73(42,500)	15.05(31,577)
스웨덴	31.34(11,749)	32.27(25,862)	35.79(27,401)	34.14(27,599)
영국	24.22(8,077)	22.03(17,024)	26.70(19,592)	25.59(24,674)
미국	13.29(17,772)	13.89(23,333)	15.87(27,490)	14.96(31,469)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카롤루스 대제 시대의 어느 봄날, 보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수도원 직영지에게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잔소리가 심한 직영지 관리인이 두려워서 늑장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솥소를 모는 첫째 아들 위드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다른 동료들과 만나 함께 직영지로 향했다. 그들 중에는 말이나 소를 끌고 온 사람, 곡괭이, 호미, 도끼, 큰 낫 등을 가지고 온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다. 그들은 모두 관리인의 명령대로 직영지나 목초지, 숲에서 일을 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갔다. 그는 점심 먹을 때를 빼고는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해야만 했다.

그의 아내 에멘트루드 역시 바빴다. 오늘은 살찐 닭 한 마리와 달걀 다섯 개를 바치는 날이다. 그녀는 9살 난 둘째 아들에게 갓난아이를 맡겨 놓고 영주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관리인을 만나 공손히 인사하고 닭과 달걀을 건네 주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곧 작은 포도밭을 돌보았으며, 저녁에는 양털로 천을 짜야만 했다.



-고등학교 『세계사』-

라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알프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시골 마을 같은 나라이다. 영토라고 해야 동서로는 가볍게 산책할 정도밖에 지나지 않으며 인구는 3만 명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나라인 리히텐슈타인도 국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웃 나라 스위스가 돈세탁 규제법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검은 돈이 리히텐슈타인으로 몰린다는 의혹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정보국에서는 이곳에서의 돈 세탁 의혹을 폭로했으며, 독일의 부정한 정치 자금들도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세금을 현저히 낮추어 조세 피난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리히텐슈타인으로서 이러한 국제 사회의 의혹에 찬 시선들은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리히텐슈타인은 국내의 관련법을 손질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였다.

-주간○○, 2000년 5월4일-

-고등학교 『정치』-

출제의도 및 해설(인문계-언어영역)

[문항 1] 제시문 **가**의 관점을 참고로 **나**, **다**, **라**에 담긴 자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750자±50)

이 문항의 주안점은 주어진 자료들을 정확하게 읽고 창의적으로 해석해내며, 이를 조리 있게 서술할 수 있는 수험생의 언어적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현대의 심각한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인간중심적인 자연관과 그에 따른 물질적 진보 이념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심에 둔 채 자연을 인간과는 분리, 대비되는 일종의 죽은 물질로 파악하고, 자연을 통제와 정복의 대상 내지 인간의 번영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간주해온 서구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비판한다. (가)의 이러한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다른 글과 그림에 내포된 자연에 대한 태도와 그 의미를 섬세하면서도 풍성하게 읽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림 (나)는 18세기 중엽 활동한 영국화가인 게인즈버러의 대표작중 하나인 <앤드루 부부>이다. 총을 든 남편과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이 그들의 땅일 것으로 추정되는 풍경을 배경으로 부각되도록 작품의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뒤의 풍경이 그 나름의 운치를 자아내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두 인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속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동양의 산수화와 대비시켜 볼 때 이점은 한층 분명해진다.

제시문 (다)는 북미 인디언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갈 것을 강요한 백인들의 요구에 대해 인디언 추장이 답한 연설문이다. 인간과 자연을 조화로운 합일적 관계로 바라보는, 즉 자연을 그곳에 깃들여 사는 인간의 삶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대하는 인디언의 관점에서 자연을 소유와 약탈, 정복의 물질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백인들의 자연관에 대해 비판한 글로서 제시문 (가)의 취지와 상통한다. 나아가 자연을 인간과 분리시켜 대상화하는 서구의 정복지향적 자연관이 단지 자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타 인종을 억압 또는 정복하는 제국주의적 행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제시문 (라)는 정비석이 쓴 금강산 기행문 "산정 무한"(山情無限)의 일부분으로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다소 복합적이다. 이 글에서 자연을 찾아 그 경관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글쓴이의 모습은 단순히 자연을 도구화하거나 정복하려는 태도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관광객으로서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심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자연 속에 깃들여 살아가는 제시문 (다)의 인디언의 관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정에 올라 그 아래를 굽어보는 대목에선 은폐된 정복욕 내지 인간중심적 태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과시적이고 수사적인 문체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글쓴이의 이러한 태도는 그림 (나)에 내포된 인간중심적 자연관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처럼 제시문들에 담긴 자연에 대한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현대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서구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극복한 대안적 관점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인디언의 자연관이나 동양적 자연관 등 자연에 대한 비서구적 사유전통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해야 함은 물론이요 제시문 (라)의 경우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유전통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제의도 및 해설(인문계-사회영역)

[문항 2] 제시문 **나**, **다**, **라**를 활용하여 **가**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해 보시오. (750자 ± 50)

이 문항은 여러 교과서에 기술된 다양한 사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창의적이며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가>는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글의 일부로서 첫째,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화합이 필요하며 둘째,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고 서로 협동해야 하며 셋째, 계층 간에 화합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는 주요 OECD 국가의 GDP 및 사회보장비 비중을 보여주는 표로서, <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즉,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우리가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 비중의 증대를 통한 복지수준의 향상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단, 표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GDP 수준이 비교 대상이 되는 여타 국가의 GDP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달성한 후 사회보장비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도 타당한 논지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의 비교적 낮은 사회보장비 비중과 유럽의 비교적 높은 사회보장비 비중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수준의 정도에 관련한 목표를 정해 어떤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 그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타당한 논지가 될 수 있음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소극적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논리가 명확한 경우 타당한 논지가 될 수 있으며, 유럽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논리가 명확한 경우에도 타당한 논지가 될 수 있음). 물론, 절충적인 방향의 제시 (복지수준과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도 타당한 논지가 될 수 있다.

<다>는 중세 시대 농노의 하루를 표현한 아일린 파워의 글과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한 중세 장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계급 사회의 실상과 이에 따른 하위 계층의 인간 기본권 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날의 시대 상황에서는 권력자와 비 권력자, 사용자와 근로자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간의 갈등과 이의 해소 방안에 관한 의견이 논지가 된다.

<라>는 유럽의 초미니 국가인 리히텐슈타인에 발생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서 긴밀한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형성된 국제 사회에서 아무리 작은 나라의 국내 정책도 국제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제적 규범을 따름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